

— 한국어의 혼성복자음화에서 작용되는 “하”에 대하여 —

박 태 화

1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복합어 형성 과정에서 생기는 음운 작용의 하나인 혼성 복자음화에서 “하”가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재래 문법에서는 어떤 언어 현상을 기술할 때 흔히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으로 분리 처리하는 수가 있었다. 어떤 규범적인 설명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여겨지는 현상들은 규칙적인 것으로, 반면 그 기준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현상들은 불규칙적인 것으로 묶어 처리한 예가 많았다. 그런데, 재래 문법에서 그렇게 불규칙적인 것이라고 분류됨에 따라 설명이 불가능 내지는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던 언어 표현들 중에서는 토착어민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또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한국어에서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분류 방법을 써온 예를 볼 수 있으니, 전자의 경우를 필연적 변화로, 후자의 경우를 우연적 변화라고 하여 분류 처리하려 한 것 등이¹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재래 문법과는 달리 현대 문법 이론, 특히 변형—생성문법 이론에서는 어떤 언어 표현이건 그것을 해당 토착어민이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만 있으면, 이는 그가 그 현상에 대한 언어 지식을 지녔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언어 현상에 반드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으리라 하는 것이 그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문법의 이런 언어관이 바르다고 보는 입장에서 필자는 한국어의 복합사를 이룰 때 일어나는 음운 현상 중 혼성 복자음화에서의 ‘ㅎ’의 원형인 소사(素詞)² ‘하’를 줌의 식적으로 분석, 검토함이 의미로울 것이라고 보고 이 글을 이어가기로 한다.

¹ 최현배 (1977),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발행 : p.109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쓴 것이 있다: “어떠한 달라짐은 항상 그리 되는 것이 있으며 어떠한 것은 …그리 달라지기도 하고, 안달라지기도 하나니 : 앞의 것을 반드시 되는 달라짐이라 하고 : 뒤의 것을 어쩌다 되는 달라짐이라 하느니라.”

² 여기서 素詞라는 말은 필자가 생각해서 쓴 말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가 되겠지만, 이 말은 영어의 Prime verb를 우리말로 素動詞라는 말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말의 ‘하’에는 素詞라고 함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동사만이 술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를 동사로만 한정함이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왜 “안팍”을 “안뵈”³이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 하겠다.

최현배 (1977) 선생은 한국어의 복자음은 혼성 복자음 (混成 複子音) 과 차성 중자음 (次成 重子音) 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혼성 복자음에 속하는 자음들은 “ㄱ, ㄷ, ㅍ, ㅈ, ㅊ” 이고, 차성 중자음은 “ㄹㅁ, ㄹㅂ, ㄹㅅ …” 등등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차성 중자음은 논의 로 하기로 하고, 혼성 복자음에 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최현배 (1977) 선생의 혼성 복자음화에 대한 예시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⁴

- (1) a. 막히→마키, 종고→조코
 b. 받히→바티 (치), 종다→조타
 c. 잡히→자피, 안팍→안뵈
 d. 갖추다→가추다, 종지→조치

위의 (1)에 대한 최선생님의 설명은, “ㅎ소리가 다른 닿소리와 접하여 나는 것인데, 이 는 ㅎ이 다른 소리와 섞여질만한 바탈을 가진 때문이고”, 그 혼성 순서는 다음 (2)에서⁵ 보여 지듯 “ㅎ을 먼저 의식하고 이어지는 닿소리를 발음하거나, 다른 닿소리를 먼저 의식 하고 ㅎ을 발음하거나 관계없다”라는 것이다.

$$(2) \quad \text{ㅎ} + \begin{Bmatrix} \text{ㄱ} \\ \text{ㄷ} \\ \text{ㅍ} \\ \text{ㅈ}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ㄱ} \\ \text{ㄷ} \\ \text{ㅍ} \\ \text{ㅈ} \end{Bmatrix} \quad \text{또는} \quad \begin{Bmatrix} \text{ㄱ} \\ \text{ㄷ} \\ \text{ㅍ} \\ \text{ㅈ} \end{Bmatrix} + \text{ㅎ} \rightarrow \begin{Bmatrix} \text{ㄱ} \\ \text{ㄷ} \\ \text{ㅍ} \\ \text{ㅈ} \end{Bmatrix}$$

위의 설명한 것만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혼성 복자음화 과정에서 (A)음성 원리에는 “ㅎ” 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ㄱ, ㄷ, ㅍ, ㅈ” 이 오거나, 그 반대 순서로 되거나 관계없고, (B)통사적인 원리로 볼 때는, ㅎ이나 ㄱ, ㄷ, ㅍ, ㅈ, 이거나 간에 복합어를 이룰 때 따르는 혼성 복자음화 이전 단계에서는 각기 형태소 속에서 음성적인 어떤 요소로만 속해 있는 것 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위의 (1)에서 c의 밑줄친 부분을 다음 (3)으로 잡아놓고 예를 들어 볼 때, 그 아래와 같은 설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³ 한국어는 글자와 발음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아서 이 글에서는 발음 기호를 쓰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표시하기로 한다.

⁴ 최현배 (1977) : 우리말본 pp.92-96 참조.

⁵ (2)의 도표는 최현배 선생의 설명 의도를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 분이 그렇게 나타내신 것은 아니다.

(3) (= / c) 앓밖→안밖

“앓밖”이 “안밖”으로 발음되는 것은, 첫째, $ㅎ+ㅂ \rightarrow ㅍ$ 의 순서이니 앞에 정리해는 (A)에 들어맞고, 둘째, “앓”은 “안(內)”의 옛말이었기 때문⁶ 이라하니 앞에 정리해는 (B)에 들어맞는다. 위에 정리한 (A)에 대해서는 바로고 틀림에 대한 것을 여기서는 따지지 않기로 한다. 다만 어떤 음운 현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사적 정보가 밝혀져야 옳은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위에 정리해는 것 중 (B)에 해당된다고 보는 “앓”은 ‘안(內)’의 옛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 설명이 옳으려면 다음에 예거되는 (4), (5), (6)의 밑줄친 부분에서도 혼성 복자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마나님이 안밖에 계시다.
- (5) 안질 처녀 바람났다.
- (6) 안기둥이 더 굵다.

위의 예문들에서 밑줄친 부분 “안”들도 앞의 (3)에서 처럼 따지면 모두 “안(內)”으로서 옛말로는 “앓”이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모두 혼성 복자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이 것들을 각기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하나같이 $ㅂ$ 이 된소리 $ㅂㅂ$ 으로 변해 “안뺑”, “안뺏”, “안끼둥”이 된다. 그러면 왜 (3)에서는 혼성 복자음화가 일어나는데 (4)-(6)에서는 된소리가 되는가? (3)의 경우는 앞에 정리해는 (A)와 (B)에 맞고, (4)-(6)의 경우는 이에 맞지않으니, 전자는 규칙 변화이고 후자는 불규칙 변화 줌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그렇게는 처리할 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4)-(6)에서 예문 든 밑줄친 부분들은 순환 원리 (cyclic principle)에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위의 (4)를 다음처럼 (7)로 놓고 (8)과 더불어 예를 들면 ; (7)=(4) 마나님이 안밖에 계시다. (8) 그 방은 이미 도둑이 돈을 든지를 안 뺏이었다.

위에서 보면 (7)의 “안뺑”은 “안뺏”으로 발음되고 (8)의 “안 뺑”은 ‘뺑’에서의 소리 변화가 없이 그냥 “안뺑”으로 발음된다. 이는 (7)에서의 ‘안’이라는 형태소가 ‘안뺑’이라는 복합어를 이루면서 이어져야 할 “뺑”이라는 형태소를 만나기 전 cycle 에서의 가락이 다음 (9)에서 보여지듯 짧고도 앞이 높고 뒤가 낮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이라는 형태소가 지닌 이런 끊임성 가락이 그 다음 cycle 에서 $ㅂ$ 을 된소리 $ㅂㅂ$ 으로 변하게 하는 작용은 한국어의 음운 규칙상 매우 자연스럽고도 규칙적인 것이라 함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설명이 될 것 같다. 또 (8)에서의 밑줄친 “안 뺑”의 “뺑”에서는 소리 변화가 없는데, 이는 “안”이라는 것이 “알다”라는 원형을 가진 말로서 우리말의 용언중의 리 벗어난 끝바꿈을 거친 준 말인데, 다음 (10)에서 보여지듯 먼저 cycle 에서 앞이 낮고 뒤가 높은 낮은 가락이기 때문이다. 이 것 역시 한국어의 음운 규칙상에 어긋남 없는 자연

⁶ 최현배 (1977), 우리말본, p.94 참조.

스러운 현상이다.⁷

(9) [[안] 방]

(10) [[안] 방]

(7)과 (8)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이치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바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음운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들은 형태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처럼 통사적 정보가 구명되어야 음운의 이치가 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뿐만 아니라 영어의 경우에서도 그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예를 들자면⁸

(11) *relaxation, emendation, elasticity, connectivity*

(12) *illustration, demonstration, devastation, anecdotal*

영어에서는 -tion이나 -ity가 붙는 단어는 제1강세가 이 어미들 직전에 있는 음절에 오게 되어있다. 위의 (11)과 (12)에서도 이 규칙에 따라 제1강세가 위에 표시된 대로 오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제1강세를 받는 바로 앞의 음절의 음가에서 볼 때 (11)과 (12)가 다르다. (12)의 밑줄친 부분의 발음은 모두 축약형 모음으로서 발음 기호로 표시하면 [ə]으로 나타내지는 소리인 반면 (11)의 밑줄친 부분의 모음은 비록 강세는 없으나 모두 원래의 발음 (i, e., [æ], [e], [æ], [e])을 유지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형태소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11)의 밑줄친 부분은 원래 기저형에서 제1강세를 취하던 음절인데 (12)의 그것들은 기저형에서 이런 특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11)의 밑줄친 부분들은 전 cycle에서 강세를 받았던 음절 (*relax, emend, elastic, connective*) 이었다는 것이 그 다음 cycle에서 비록 무강세 음절로 되었더라도 축약형 모음으로의 전환만은 막아주는데, (12)의 그것들에게는 이런 속성이 없어서 모두 축약형 모음으로의 전환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7)과 (8)에서의 한국어의 예나 (11)과 (12)에서의 영어의 예나 모두 그 말소리 결정에 있어서는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기저형이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⁷ 최현배 (1977: 99)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긴소리 (/) : 발을 잘한다.

예사소리 (-) : 쌀 한 말에 얼마요?

짧은소리 (`) : 발을 먹이는 사람.

위의 가락 표시에서 보면, 긴 소리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낮은 것이고, 예사소리는 평한 가운데 가락이며, 짧은 소리는 앞이 높고 뒤가 낮은 높은 가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표시 방법은 우리말에서는 매우 이치에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⁸ N. Chomsky (1972), *Language and Mind*, pp. 43-45 참조.

있다.

다시 (3)으로 돌아가서 “안팎”은 “안밖”에서 온 것으로서 여기에서 “안”은 “안(內)”의 옛말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이런 설명은 이미 (4)-(8)의 예들을 검토함으로써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어 졌다. “안팎”이라는 말소리가 결정된 것은 “안밖”이라는 말에서 부터라는 생각은 일단 버리고, 앞의 (7)-(8)을 검토해 본 끝에 언급된 바처럼, 표면에 보이는 형태소 “안”과 “밖”이 합쳐지는 과정 중 어떤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기저 표시로만 나타낼 수 있는 형태소가 또 하나 있어서 그것이 혼성 복자음화를 유발하지 않느냐 하는 가정을 세워볼 지하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3)의 혼성 복자음화 현상을 아래 (13)과 (14)에서의 혼성 복자음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3) 말 안고 갔다.

(14) 그렇지 않다.

(13)과 (14)의 밑줄친 부분을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각기 “말 안코 갔다”와 “그러치 안타”가 되는데 이는 (13)과 (14)가 다음 (13')과 (14')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13') 말 아니하고 갔다.

(14')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위의 (13)과 (14)에서 혼성 복자음화를 일으키는데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음은 모두 ‘하’를 원형으로 하는 준말이다. 그런데 앞의 (3)에서는 이런 음이 표면에 보이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연유로 하여 (3)과 (13)-(14)를 별개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안팎”을 “안”과 “밖”이라는 형태소들만을 가지고 따지려 들면 ‘하’의 준말인 음이 없는 것 같지만, “안팎”이라는 말의 의미로 보아 “안하고 밖”이라는 말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기저형은 다음 (15)처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15) 안 + 하 + 밖

“안팎”의 기저형을 (15)처럼 본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안(內)”이 옛말로는 “안”이었다는 생각을 바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며 이 “안”은 “안”과 “하”로 따로 봄이 옳다고 보는 것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필자는 이 ‘하’를 일단 한국말의 풀이씨로 보는 것이다. “안팎”은 “안하고 밖”으로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안과 밖”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고”와 “과(와)”를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게 되니 위 (15)의 ‘하’를 접속사로 보면 몰라도 풀이씨로 봄은 좀 이상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는 수가 있을 것 같다. 물론 (15)의 경우만을 보면 ‘하’ 자리에 ‘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밝혀지는 것처럼 (15)의 ‘하’는 한국어에서 풀이씨로 봄이 매우 그럴듯한 생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예를 보자.

(16) 니캬 내캬

(17) 너콰 나콰

위의 예에서 (16)은 경상도 지방에서 쓰이고 (17)은 평안도 지방에서 쓰이는 방언들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모두 ㅅ과 ㅇ이 혼성되어 “캬”와 “콰”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콰”자리에 “하”가 끼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안팍”의 기저형을 (15)처럼 보았을 때 그 “하”의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를 따지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영어의 경우에도 동과 같은 것은 素動詞 (prime verb)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18)-(21)에서와 같이 그 쓰임에서 기능적인 것이 중요하지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18) I *had/took* a look at my watch.

= I looked at my watch.

(19) I *took* a walk.

= I walked.

(20) They *made* a test.

= They tested.

(21) I *had* a healthful breakfast.

= I ate breakfast healthfully.

그런데 (15)의 ‘하’의 뜻을 밝혀볼 경우에는 다음 (22)에서 밑줄친 부분 줌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22) 안하고 팍이 함께 ...

위처럼 ‘하’의 뜻이 “하고 ...이 함께 ...”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이 “하”는 위 (18)-(21)에서 볼 수 있는 영어의 素動詞보다 쓰이는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의 “하”는 素詞⁹라는 명칭을 붙여 볼 수 있는 형태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안팍”이라는 말이 생겨날 때 따르는 혼성 복자음화에 ‘하’가 작용하리라는 가정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를 해왔다. 요약하면 “안팍”의 기저형을 (15)처럼

⁹앞의 NOTE 1 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 경우의 ‘하’는 동사만이 술어로 쓰이는 영어의 prime verb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素詞라고 부름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말의 풀이씨는 동사만이 쓰이는 것이 아니고 형용사도 쓰이는 까닭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를 동사로만 한정하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이 글에서의 주 논지가 아니고, 이것이 명제를 이루는 것이냐 아니냐만을 따지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임을 밝혀둔다.

잡고, ‘하’라는 素詞가 작용하는데 그 뜻은 (22)처럼 봄이 옮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를 (22)에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팎”이라는 것을 기저형에서 하나의 명제 (proposition)로 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19)라는 기저형을 갖는 “안팎”의 의미표시는 다음 (23)처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23) \quad F(x, y) \\ F = \text{하} \quad x = \text{안} \quad y = \text{밖}$$

3

앞장에서는 “안팎”이라는 것만을 중심으로 논의한 끝에 이것을 기저형에서 하나의 명제로 보고 그것의 의미표시를 $F(x, y)$ 라고 하여 “ $F=\text{하}$ ”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안팎”이라는 자료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가 다른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기저형에서 명제를 “안팎”의 경우처럼 분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복합어가 모두 앞장의 (23)에서 “ $F=\text{하}$ ”로 표시된 것 같이 모두 혼성 복자음화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위와같은 문제를 놓고 다음의 예문들 중에서 밑줄친 부분들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 (24) 이 참외는 달지도 않고 물탱이다.
 (25) 그 사람 보기는 단단해 보이는데 물갱이더군
 (26) 장마에 길이 온통 물쿠벙이가 됐네.
 (27) 이런 물코기는 맛 없다.
 (28) 여기서는 물쿨 안팍니다.
 (29) 날파람에 가랑잎 날 듯한다.

(24)의 “물탱이”는 “물”과 “탱이” 사이에 “섞이다”쯤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하”가 혼성 복자음화가 된 다음, 한국말에 흔히 있는 “홀소리”, “1치바뀔”을 거쳐 “물탱이”가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가 없다고 보고 “물”과 “탱이”만 합쳐진 것이라고 보면 그것을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물탱이”가 될 지 모르나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과 “탱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갖출 의미 자질로 보아도 그대로 두 말이 합쳐져서 복합어를 이룬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25)의 “물갱이”도 “물”과 “갱이” 사이에 “섞이다” 또는 “스며들다”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풀이씨가 “하”가 혼성 복자음화를 이룬 말이라 볼 수 있다. (26)의 “물쿠벙이”도 “물이 뒤범벅으로 들어간 구덩이”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말인데 “물+하+구덩이”에서 혼성 복자음화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27)의 “물코기”도 “물”과 “고기” 사이에 “섞이다”로 이해될 수 있는 “하”가 작용하여 “물코기”로 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한때 소에다 소금을 먹여 놓고 마

구 그 소를 때린 다음 무게를 늘려서 잡아 팔았던 악덕 상인들이 공급했던 불고기 감 고기를 일컫는 말로 쓰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말이다. 이 “물고기”라는 말은 단순히 “물”과 “고기”가 합쳐 생긴 “물고기”라고 발음되는 생선이라는 뜻의 “물고기”와는 다르다 함을 알 수 있다. (28)의 “물쿨”은 어떤 굴 양식장을 갖고 있는 어촌에서 한 어촌 계장으로 보이는 분이 모 방송국 아나운서와 대담하는데서 여러 번 반복해서 쓰던 말인데, 굴을 그대로 팔지 않은 물을 섞어서 두었다가 파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물쿨은 팔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때서 필자가 들은 말이다. 물론 필자도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물쿨, 물쿨”하는 소리를 듣는 즉시 이해할 수 있었던 말이다. (29)의 “날파람”은 “날”이 “날아가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람”앞에서 “날”로 준 한편 “하”를 사이에 두고 “바람”으로 이어지는 때서 혼성 복자음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날파람”과 더불어 다음 (30)과 (31)을 놓고 비교해 보자.

(30) 마파람에 돼지 불 알 놀듯하다.¹⁰

(31) 봄바람에 처녀 들뜨듯한다.

(30)의 “마파람”에서는 “마”와 “바람”이 합쳐지면서 혼성복자음을 이루었는데 (31)의 “봄바람”에서는 혼성복자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이 된소리로 되어 “봄빠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30)의 “마파람”은 옛날에 뱃사람들이 남쪽을 가리켜서 “마”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연관해 보면 “남쪽에서 불어 오는 바람”이라는 말이었던 것이 지금의 “미풍”이라는 뜻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마파람”도 “마”와 “바람”사이에 “에서 불어오는”이라는 것 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하”로 변해서 결국은 “파람”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31)의 “봄바람”은 그냥 “봄”과 “바람”이 단순히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이기 때문에 “봄”이라는 것의 가락에 따라 비이 된소리 비이로 소리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4)-(31)에서 보았듯이 “안팎”이라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다른 혼성 복자음화 과정에서 그럴듯하게 들어맞는다. 앞에서 예시한 자료를 말고도 이런 분석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 자료를 더 많이 찾아서 논의를 계속해야 됨은 말할나위도 없다.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더 깊은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 점에서 이 장을 끝내기로 한다.

¹⁰ 필자의 생장지인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는 모기와 같은 것을 “물컷”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또 여름에 쌀이 없어서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못마땅한 표현으로 “밀컷만 먹으니 힘을 쓸 수 없다”와 같은 말을 썼던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말이 두루 쓰이는 지는 몰라도 “밀컷” “물컷”에서 혼성 복자음화가 일어나는 것도 이 예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

4

한국어의 복합명사들 중에서 기저형을 명제로 볼 수 있는 것의 어떤 것들은 혼성복자음화를 겪게된다. 이 때에 의미표시는 $F(x, y)$ 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할 때, 이 F에 해당되는 풀이말의 뜻이 어떨든 마즈막에 가서는 素詞 “하”로 통합되고 바로 이 “하”가 “ㅎ”으로 남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닿소리와 합쳐서 혼성복자음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최현배, 1977. 우리말본, 여섯번째 펴냄. 서울: 정음사.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 1972. *Language and Min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Cranane, L. B., et al. 1981.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Little, Brown and Company.
 Smith, N., and D. Willson. 1979. *Modern Linguis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강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